



김 용 화
(분지 편집장)

**본회 기구개편 단행
서비스 업무수행에 역점**

협회란 동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설립하고 유지해 나가는 모임체를 말한다. 물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 관할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여 지도·감독을 받으며 회원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는 비영리 단체이다.

한때 협회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 성격 때문에 주인이어야 할 회원들이 손님처럼 인식되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시대적인 흐름과 병행하여 보통사람시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

서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도 회원이 주인이 되는 변화를 맞이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원이 우선 알아야 할 사항은 본회 조직의 운영이다.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일반 운영비 보조는 한푼도 없다. 다만 특별계정으로 관리되는 닭 경제능력검정소의 경우 시험사업으로 위촉받은 부분에 대한 사료비 지원금이 있을 뿐이다.

일반 예산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이내이다. 나머지 예산은 간행물 발간사업, 특별협찬금 등으로 충당이 되는 점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왕왕 중계 검정료를 징수하여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예산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예

산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김정소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본회 운영은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업무 지향보다는 본회 조직 유지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높았던게 사실이었다. 금년 2월 본회 총회개최시 제15대 임원개선을 통하여 회원들은 본회 운영에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하였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예산 자립,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의 기틀을 닦겠다는 차원에서 기구개편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2부1소 체제를 5팀 체제로 하여 책임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 운영에 있어 예산자립이다. 과거와 같이 채용된 직원이 회원의 권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예산확보에 투입이 된다면 책임있는 업무수행은 늘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이 주인의 자리로 돌아온 이상 필요한 업무를 주문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 회원이 부담하는 예산비중을 높여나가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도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 업무가 되도록 관리능력을 발휘하여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닭 질병발생의 심각성
계절에 관계 없이 커지고 있다.**

양계업계에서 닭 질병발생으로 사라지는 경

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양계인은 있을까? 있다면 그 수는 어느 정도일까? 매우 궁금해진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 소멸은 계산이 어려워 차치하고라도 생산가액을 기준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림잡아 육계가 6천억원대, 채란계가 8천억원대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 총 1조4천억원중 20%가 질병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액은 2천8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과연 2천8백억원이란 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양계농가를 어림잡아 1만가구나 했을 경우 가구당 2천8백만원씩 손실을 입는 셈이다. 그렇다면 농가당 연간 순이익이 2천8백만원이 넘는 곳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학적인 계산에 불과하지만 농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억원 이상의 질병 피해로 쓰러져가는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질병억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질병은 혼자 위생관리를 제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 나와 이웃이 함께 방역에 힘을 쏟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날아가는 2천8백억원중 1%에 해당하는 28억원의 기금을 모은다면 농가당 3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보험에 가입했다 생각하고 1만가구 양계농가가 3만원씩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면 웬만한 후진국형 닭 질병퇴지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허공으로 날릴 바에야 차라리 모아서 공동대처를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고, 생산량이 닭

수수에 비례하는 생산구조를 보인다면 수급조절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질병피해가 워낙 커서 닭 수수는 증가하여도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에 의한 예측이 불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서로에게 허점이 많다. 조속히 업종별로 닭 질병 방역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업종별 농가현황을 파악하고, 기금모금 방안 등을 계획해 나간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닭 질병 방역대책 수립은 생산성 향상 이외도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꼭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닭고기 수입량 증가로 국내 육계출하 체중이 변한다.

우리나라 육계업은 경영효율 우선주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차 발생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600원짜리 병아리로 3kg짜리 육계를 사육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다. 사육여건, 소비경향, 가격등락에 따라 출하일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 출하체중이 존재하기 어렵다. 계열화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닭고기 판매시 시장 흐름에 쫓을 수밖에 없어 일반 사육농가의 출하 양상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1.8kg(생체중)이 하이와 세미를 가르는 기준 체중이었다. 핵가족화에 따른 닭고기 선호중량 하향, 가격인하를 위한 원재료비 최소화 등으로 하이와 세미를 나누는

출하중량이 1.6kg에서 다시 1.5kg로 변화가 되었는데, 현재는 가격에 따라 하이와 세미 기준이 1.5kg에서 1.49로 유동적이거나 할인 폭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어쨌거나 육계업은 소비가 되는 한 출하중량을 높여야 생산비가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출하중량이 낮아지는 시장구조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가공이나 부분육으로의 소비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큰 닭의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닭고기 요리가 도리탕, 백숙, 삼계탕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중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에 닭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면서 가공용이나 특정 부위의 사용량이 수입육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하이물량의 유통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신선육과 냉동육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유통구조 때문에 수입육의 국내시장 공략은 거세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금년 4월부터 국내 생산량에 비해 육계가격은 하이로부터 무너져 예상 밖으로 저조하였다. 이미 수입 닭고기가 그간 국내산 하이물량을 대신하는 결과가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격차 때문에 수입 닭고기의 국내 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출하체중을 높여야 할 입장에 있는데 출하체중을 높이면 당장 판로에 지장이 생기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정말 미로에 빠진 셈이다. 육계업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별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양계**